

통합 진보당 당원이 되다.

개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 글에서 개발 환경이 현재와 같이 열악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 시스템의 부재라고 이야기했다. 복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두번의 실패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이런 위험을 무릎쓰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게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계속된 도전이다. 우리들이 꿈꾸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무수한 도전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실패로 인해 다음에 더 좋은 것, 성공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분야이다. 한 번의 도전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국내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려면 가장 먼저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 젊은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성과를 정말로 노력한 이들에게 돌려줄 때 국내 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며,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은 복지에 뜻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힘을 키우는 길이다. 그네들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정치인,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을 정치 무대의 중앙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나는 나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통합 진보당을 선택했다. 물론 최근 민주 통합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나 또한 몇 일 전 경선에 참여했다.) 민주 통합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한계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주 통합당과 통합 진보당이 공존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정보는 마음에 든다. 민주 통합당은 좀 더 온건적으로 접근하고 급진적인 제안은 통합 진보당을 통해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다.

나는 아직까지 힘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고, 나의 소신과 일치하는 통합 진보당 당원이 됨으로써 당의 의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한다. 당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통합 진보당에 가서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한 달에 1만원 이상의 당비만 내면 된다. 1만원씩 당비를 내면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을 때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나머지 2만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 소득 구간이라면 3600원 정도는 다시 환급을 받는다. 즉, 1년에 1만 7천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통합 진보당은 모든 운영을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돈봉투 관련된 일도 생기기 힘들다. 우리가 다른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들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 사람들이 통합 진보당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통합 진보당의 당원이 되어보면 어떨까? 한달에 1만원. 아니 단돈 1400원으로 당원이 될 수 있다.